

“사회시스템을 더 정의롭게 만드는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 기획특집-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 ③ — 송오식 (광주기윤실 공동대표,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교회의 강단이 훼손되고, 세상이 교회를 '극우집단'으로 평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있다. 광주기윤실 4월 세미나에서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발제한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미션21이 4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는다.

지역사회의 문제, 구체적인 이웃들의 아픔을 정책적 제안으로 연결하는 '생활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조금 더 정의롭게 바꾸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이다.

(2) 정치적 문해력 함양: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 시민 교육

가. 분별의 틀 세우기: 성경적 핵심 가치 설정
정책을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기준(Lens)으로 세상을 볼 것인지 '성경적 공통 분모'를 확립해야 한다.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닌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치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인권, 생명 윤리, 소외계층 보호)을 존중하는가?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며 여윌만한 자가 없는 시스템인가? 미래 세대와 피조세계를 배려하는가(환경 정책)? 갈등을 조정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

와 화해를 지향하는가?

나. 정보 문해력 기르기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매체가 각각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하며, 팩트와 해석을 분리하는 연습과 함께, 특정 정책이 어떤 용어로 포장되어 있는지(예: 자유인가 방임인가, 평등인가 규제인가) 그 의미의 도를 읽어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다.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훈련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놓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공의, 사랑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토론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지 혹은 비판적 대안 모색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 교육의 방식: '안전한 공론장' 형성

교회 교육은 일방적인 선포에 앞서 상호 존중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가급적 배제하고,

정책과 가치 자체에 집중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 태도를 견지한다. 교육이 지식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조례 제정 참여나 캠페인 등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육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의 복잡한 정책 속에

정이다.
(3) 분별 있는 참여: 정당 가입과 활동은 개인의 영역으로, 교회는 원리적 기준 제시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정당을 만들거나 직접 정치 활동을 하기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성숙한 개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하도록 후원하고 교육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정치가 아닌 '그리스도인'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개인의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정의 실천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의 불의와 부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고,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관심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의 참여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교회의 거룩성은 정치 영역에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정치를 요구하게 한다. 정치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인권·생명윤리중중·자원공정배분·환경 등이 정책판단 잣대 필터버블·확증편향 구분하고 극복하는 정보 문해력 길러야

루터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쓰신다"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정의를 구별해내는 눈을 갖게 해야 한다. 이는 정치 선동가가 아닌, 이 땅의 '소자'를 돌보는 청지기로 시민을 길러내는 과

▲나가며: 다시 '복음'의 자리로

(1) 교회의 본질 회복: 정치적 승리가 아닌 '영혼의 구원'과 '사회적 공익'의 우선성

교회가 정치와의 관련성에서 의미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 '거룩성'이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 교제, 봉사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죄악된 행위로부터 구별됨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

중요한 지침으로 제시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과 권력 논리에 오염되어 거룩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지나치게 동조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보편성은 성경적 가치, 즉 정의, 평화, 사랑,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 참여의 동기가 된다. 특정 문화나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추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보편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이끈다. 이는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 구조



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할 수 있다.

(2) 두 왕국 사이를 걷는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시민권을 겸유하고 있다. 천국 시민권과 이 땅에 속한 국가의 시민권이다.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가. 양 손의 원리(The Principle of Two Hands): 루터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 왼손(지상의 정부/법)과 오른손(교회/복음)을 모두 사용하는데, 지상의 왕국은 법과 질서, 보편적 이성을 통해 악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영역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이 영역의 법적 질서를 존중하며 정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늘의 왕국은 사랑과 용서,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영역이다. 순례자는 지상의 정치를 절대화(우상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것을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다.

나. 거룩한 거리두기와 비판적 동참: 순례자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대변한다고 믿는 순간, 신앙은 정치의 시녀가 된다. 순례자는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예언자적

비판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반대 진영의 정책이라도 그것이 공의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부합한다면 지지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미와 아직(Already but Not Yet)의 긴장: 순례자는 종착지(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이다. 정치를 통해 이 땅에 완벽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정치적 유토피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상의 법과 정치는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의 영역은 대개 '최선'이 아닌 '덜 나쁜 것', 혹은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순례자는 완벽한 답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현실적인 충실성을 가져야 한다.

라. 공적 영역에서의 '번역된 언어' 사용: 순례자는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 교회 내부의 언어(성경 구절, 교리)만으로 정치를 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사회 전체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의, 인권, 평화, 정의'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번역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다.



송오식 교수가 광주기윤실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부흥회를 하면 부흥이 됩니다

김병훈목사 초청 고창은혜기도원 연합치유성회

주최: 네모든별을 고치니(세민 103-3)
일시: 2026년 5월 25일(일)~28일(목)
시간: 오전 10:30, 오후 2:30, 밤 7:30

5.25(일) 5.26(화) 5.27(수) 5.28(목)

부흥회 특강 5.27(수) 오후 4:00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봉남 목사) 010-8007-9142

김병훈목사 초청 대부도 엘림수양관 연합치유성회

주최: 주남니를 치료해주옵소서(아사리 38-16)
일시: 2026년 6월 8일(일)~11일(목)
시간: 오전 10:30, 오후 2:00, 오후 4:00, 밤 7:00

6.8(일) 6.9(화) 6.10(수) 6.11(목)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봉남 목사) 010-8007-9142

김병훈목사 초청 큰심자가기도원 연합치유성회

주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소서 (세민 4-2)
일시: 2026년 6월 22일(일)~25일(목)
시간: 오전 10:30, 오후 2:00, 밤 7:00

6.22(일) 6.23(화) 6.24(수) 6.25(목)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봉남 목사) 010-8007-9142

날 짜	강 사	장 소
9.28~10.1	7명 대회장	목포 중앙기도원
8.24~8.27	9명 대회장	장성 남경신기도원
7.13~7.16	9명 대회장	목포 풍성교회
7. 6~7. 9	9명 대회장	인천 주사랑기도원
6.22~6.25	9명 대회장 김중환, 김병훈, 정찬경, 손태홍, 이상열, 송형훈, 김중환, 최봉남, 배성찬, 서재철	큰심자가기도원
6. 8~6.11	16명 대회장 손태홍, 김병훈, 김우섭, 마영수, 박병철, 박일규, 이광현, 박순희, 서정우, 김경현, 박 민, 최봉남, 조한우, 정찬경, 임선대, 김기성	대부도 엘림수양관
5.25~5.28	9명 대회장 박상옥	고창은혜기도원
4.27~4.30	9명 대회장 이진구	충주다메섹기도원
3.23~3.26	9명 대회장 리중기	목포중앙기도원

대한(大韓)부흥사협회(Korea Society of Reconstruction and History) 집회문의: 010-3007-9142, 010-3250-8542
모든 집회는 CYN(최용남)TV로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후에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